정부 "내년까지 임원 여성비중 20%까지 높이겠다" 말했지만…

공기업 유리천장 '여전'… 36곳 중 여성임원은 '1명'

현직 임원 170명 중 1명만 여성
민간기업 보다 정책실현 뒤쳐져

국내 공기업의 현직 임원 170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한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13일 메트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곳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 뿐이다.

전체 임원 수로 따져보면 총 380명(공석 제외) 중 남성이 91.3%(343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임원은 9.7%(37명)에 그쳤다.

유일한 현직 여성 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옥선 상임이사다. LH는 지난해 1월 56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임원인 장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LH는 전체 임원 15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여성 임원이 각각 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국공항공사, 한국중부발전,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여성 임원 각각 2명이 근무 중이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11곳이나 된다.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여수광양항만공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엔 남성 임원만 있다.

현직 임원만 따지면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아진다.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시업무 임원 전체 170명 중 여성 임원은 1명뿐이다. 비율로 따지면 0.58%로 전체의 1%도 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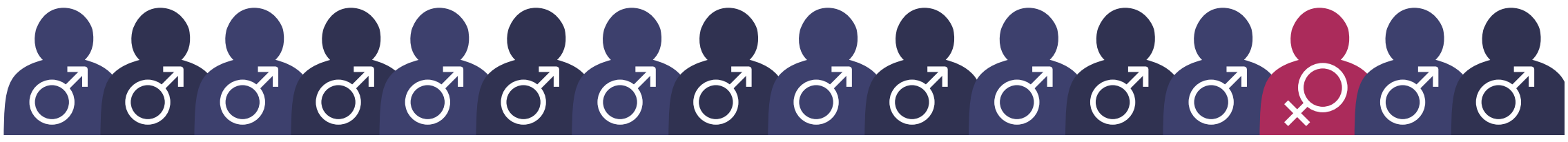
현직 임원이 없다는 것은 '임원 후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CEO(최고경영자) 자리를 꿰차려면 임원 사다리부터 올라야하는데, 여성 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사로 있어 향후 승진이나 CEO 선임 등을 노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여성 유리천장 해소' 목표에도 적색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2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민간기업보다도 정책실현에 뒤처지는 모습이다. 스코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30대 그룹 256개 계열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3.1%(9727명 중 299명)로 조사됐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한국장애인고용公, 핵심가치 선포식 개최

비전·핵심가치 공유하며 의지 다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3일 주요 장애인단체장, 장애인고용우수사업체 대표 및 장애인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공단의 새로운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를 장애인계,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기업 등 공단의 주요 고객들과 공유하고 공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단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조기 수행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해 10월 미션·비전 등의 경영전략체계를 변경했으며 핵심가치를 ▲장애 감수성 ▲시장 친화성 ▲조직 투명성으로 새롭게 고쳐 기관의 변화의 지를 피력한 바 있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중진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지원

최대 60억·지방 70억 대출 가능
향후 창출·성과 따라 이자 환급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새로 만들고 전국 지역본·지부에서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며,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올해 1·4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한방온열 안마의자' CES 혁신상

한의학 경락 이론 바탕… 효과 검증
경혈 자극하기 위한 특허 기술 적용

코웨이는 한방의학을 접목시킨 '코웨이 한방온혈 안마의자 MC-S01'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웨이 한방온혈 안마의자는 한방의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락 이론에 따라 주요 경혈 위치를 자극해 신체 통증 완화 및 수면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검증받았다. 특히 안마의자에 전통적인 한방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제품이라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9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품은 경혈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코웨이만의 특허 기술이 담긴 '온열 테라피 툴'을 탑재했다. 제품 내부에 탑재된 2개의 온열 테라피 볼이 사용자의 주요 경혈 자리를 움직이면서 뜸을 놓는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경혈을 자극한다.

한방온혈 안마의자는 신체 사이즈가 다른 사용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인 신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체형을 자동으로 조정해 경혈 위치를 보정하며 다리 길이를 최대 22㎝까지 자동으로 조절 가능하다.

이번 신제품은 심신 안정 및 수면개선을 위한 '안신도면 코스', 허리 부위 혈액 순환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서근제통 코스' 등 총 7가지 한방온혈 안마 코스를 탑재했다. 또한 일반 안마 코스 4가지, 스트레칭 코스 2가지도 탑재해 사용자가 자신의 몸과 컨디션에 맞춰 다양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D 입체 마시지'를 적용해 온몸을 꼼꼼하게 안마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허리까지만 이어지는 I자형 프레임이 아닌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L자형 프레임을 적용해 더욱 세심하게 안마가 가능하다. 이외에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안마를 즐길 수 있도록 블루투스 스피커도 탑재했다.

일시불 판매가는 550만원이며 제품 구입 시 1년 무상 A/S가 제공된다. 제휴 카드 및 자체 무이자 할부 제도 등을 이용해 최대 36개월까지 할부 구매도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초미세먼지 거르는 공기청정기 '휘바람 Ⅳ'

울파 필터 적용… 포집효율 초고성능
이온 제균·탈취 등 쾌적한 공기 유지

청호나이스는 울파필터를 적용한 '청호 울파 공기청정기 휘바람Ⅳ'(사진)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울파(ULPA)필터 공기청정기는 기존 헤파(HEPA) 필터 공기청정기가 0.3㎛의 입자에 대해 약 99.97%의 포집효율을 갖는데 비해, 0.1㎛ 입자에 대해서도 포집효율이 약 99.99% 이상인 초고성능 공기청정기다.

이 제품은 1단계 프리필터, 2단계 미디엄필터, 3단계 울파필터, 4단계 탈취필터를 적용해 큰 먼지부터 극초미세먼지, 유해 생활가스까지 제거한다. 또한 공기 중으로 이온(ion)을 배출해 세균 및 냄새를 제거하는 이온 제균, 탈취기능이 있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시킨다.

또 제품의 전원을 끄면 송풍구가 자동으로 닫혀 외부의 먼지가 제품 내부로 유입되지 않아 더욱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먼지센서를 통해 실내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및 분진을 감지해 공기오염도를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블루-그린-퍼플-레드)로 표시한다. 자동모드 설정 시엔 공기 오염도에 따라 청정기의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2개월 주기의 방문 서비스를 기준으로 월 렌탈료는 4만9900원(의무사용기간 36개월 및 소유권이전 60개월), 일시불 가격은 154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리클라이너 '가르다' 한정특가 프로모션

에이스침대는 스트레스리스 리클라이너 '가르다(GARDA)' 제품을 한정 수량, 기획가로 판매하는 'THANK YOU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100% 노르웨이산 명품 리클라이너 '스트레스리스'를 국내 수입, 유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트레스리스 신제품 가르다를 기획가인 167만8000원에 100조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행사는 아울렛 매장을 제외한 스트레스리스 취급 전국 백화점에서 진행한다.

가르다는 스트레스리스만의 특허 기술인 글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해 등받이와 시트가 몸의 움직임에 맞게 섬세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360° 회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중패드로 제작돼 천연 가죽의 부드러움과 쿠션감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번 가르다 제품의 가죽색상은 보르도, 목재색상은 오크로 재고 소진 시까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